아주 좋은 날

2021 AUTUMN VOLUME 57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다

바람에 살랑이는 꽃잎, 반짝이는 파도의 포말. 김형선 작가는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페인팅 나이프를 이용해
대담하면서도 절제된 터치로 표현한다. 그렇게 캔버스에 간결하고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자연의 선과 면에는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김형선 작가, Palette of Autumn, Mixed media on canvas, 25.8×18 cm, 2020

message

급변하는
삶 속 -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다

전 세계인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놓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달 음식이 늘어나고, 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상 기온으로 수개월째 불타고 있는 미국의 산과
사우디 사막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 등등
최근 자연은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가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해치며
인류의 존속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이제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고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니까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삶을,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 성장을 일궈
행복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행동에 옮기는 개인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021년『아주 좋은 날』가을호가 그 시작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면의 시간이 돌아오고
따뜻한 만남의 시간이 곧 시작되길 기원하며,
이번 가을호에 소개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 AUTUMN
AJU BIANNUAL MAGAZINE

VOL.57

발행일 2021년 10월 19일
통권 제57호
발행처 아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팀
02-3475-9693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편집 · 디자인 안그라픽스
인쇄 베러웨이시스템즈
등록번호 서초 사00076호

contents

inspiration

gallery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다
2

forecast
탄소 중립,
넷 제로 사회의 달라질 일상
10

insight
대지와 가까이
스콧 & 헬렌 니어링 부부의 굿 라이프
14

interview
이제 개인 차원의 백신을 넘어
사회적 백신이 필요한 때
신의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16

scene of object
정작 줄여야 할 건 욕망이야
영화〈다운사이징〉
18

literature and tomorrow
당연한 자연은 없다,
물이 없어진 세상, 소설『드라이』
22

movement

world report
지속 가능한
여행
26

creator
식물을 닮은 삶
생태조경가 김봉찬
30
식물학자 신혜우
32

curation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생활
34

AJU now
아주가 그리는
친환경
38

AJU spirit
지친 심신을 북돋는
아주인 활력 UP 프로젝트
42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46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50

© Joe Slatter

© Joe Slatter

마스크 4,000개를
녹여 만든 틀부터 마스크를 일일이
해체해 얻은 실로 짠 패브릭,
그리고 컬러까지, 베일 스툴의 재료는
모두 폐마스크다.

Veil Stool

폐마스크,
의자로
재탄생하다

베일 스툴

개인 방역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품인 마스크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새로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7월 영국 BBC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달 전 세계에서 1,300억 개에 가까운 마스크가 버려진다고 보도했으며, 홍콩의 한 NGO 단체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일회용 마스크 15억 6,000만 개가 바다에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폐마스크의 환경오염 문제를 적시하고 또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영국의 영 아티스트 조 슬래터(Joe Slatter)가 폐마스크 재활용의 신선한 방안을 제안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가 만든 베일 스툴(Veil Stool)의 재료는 100% 폐마스크다. 그는 촘촘한 폴리프로필렌 구조로 되어 있는 마스크를 일일이 해체해 실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해 프랑스 자수 기법인 스미르나(Smyrna) 기법으로 손수 짜서 푹신푹신한 스툴을 완성했다. 3개의 다리 역시 마스크를 녹여 틀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하늘색에서 흰색으로 그러데이션되는 의자 컬러는 일회용 마스크의 색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조 슬래터는 런던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를 직접 수거해 오존 스프레이로 소독하고 나서 4주간 햇빛 아래 둔 다음 스툴 재료로 사용한다. www.behance.net/joeslatterdesign

© Heatherwick Studio

Little Island

100살 부두,
수상 공원으로 재탄생하다

리틀 아일랜드

뉴욕은 도시 재건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대표 도시 중 하나다. 버려진 기차 선로를 공중 공원으로 재생시킨 하이라인 파크부터 첼시 마켓, 미트패킹 등 일찍이 도시 재건의 선례를 남긴 뉴욕이 또 하나의 역작을 만들었다. 지난 5월 21일 범람이 많은 허드슨강에 개장한 수상 공원 리틀 아일랜드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원래 대서양을 항해하던 정기선이 정박하던 부두로, 100년이 훌쩍 넘어 쓸모를 다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피어54'에 새 숨을 불어넣었다. 시민 공원으로 재생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꼬박 8년. 뉴욕 미디어 사업가 배리 딜러(Barry Diller) 부부가 2억 6,000만 달러를 기부해 만들었는데, 영국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은 부두에 남아 있던 수백 개의 말뚝에서 영감을 받아 튤립 모양의 거대 콘크리트 기둥 132개가 공원을 떠받치는 인공 섬을 구상했다. 허드슨강의 생태계와 환경 요소를 고려해 기둥의 높낮이를 조정한 결과 기복이 심한 지형이 완성됐는데, 이는 평지보다 오히려 풍부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했다. 리틀 아일랜드는 350여 종의 꽃과 나무가 자라는 공원이 있고 야외 공연장에서는 수많은 공연이 열려 뉴욕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리틀 아일랜드는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 위에 9,700m^2(약 3,000평) 규모로 조성한 수상 공원이다. 산책길과 잔디 언덕, 계단 등이 넓게 조성되어 있고, 최대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과 공연장도 곳곳에 있다.
www.littleisland.org

© Heatherwick Studio

맹욱재, 백색의 숲,
도자 가변 크기,
2021

Triennale di Milano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밀라노 한국공예전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한국공예전이 우수 전시(Best Fuorisalone)로 선정되었다. 이번 전시는 '사물을 대하는 태도(All about Attitude)'를 주제로, 인간 중심의 공예에서 벗어나 인간–사물–자연의 수평적 관점이 깃들어 있는 공예 작품을 선보여 깊은 공감을 얻었다.

올해 한국공예전에서는 금속, 도자, 섬유, 유리, 목, 옻칠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의 작품 126점을 소개해 주목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맹욱재 작가의 도자 설치 작업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자를 주재료로 작업하는 맹욱재 작가는 환경 위기로 인한 변종 생명체를 상상하며, 표백제를 뒤집어쓴 것처럼 백색이 되어버린 생명체들의 '백색의 숲'을 연출했다. 작가는 슬립 캐스팅으로 상상 속의 생명체를 섬세하게 표현했고, 전시관에 숲속의 향을 설치하고 자연과 인공의 소리를 접목한 백색 소음을 틀어 공감각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그 밖에 조선 목가구의 기능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박종선 작가의 원목 테이블, 2021 공예주간에서 올해의 공예상(창작 부문)을 수상한 김준용 작가의 유리 공예품 등 한국 공예의 내일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밀라노 한국공예전은 밀라노의 역사와 문화, 현대미술이 공존하는 옛 도심의 상징인 팔라초 리타에서 열렸으며, 한국 공예 작품 126점이 전시되었다. www.kcdf.or.kr

이상협,
Icicle Horibyung, 순은,
260×260×420mm, 2021

박종선, Trans202107_Audio,
컬러 스틸, 단풍나무, 블루투스 스피커,
265×270×411mm, 2021

박종선, Trans201004_lighting,
호두나무, 황동,
900×900×1540mm, 2010

Tree Hotel

자연 속으로,
나만의 공간으로

트리 호텔

스웨덴 북부 연안에 위치한 도시 룰레오(Luleå)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트리 호텔은 통념을 뒤집은 창의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거진 숲속에 지은 트리 호텔은 환경을 지키는 일이 지속 가능한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 세계 여행객들이 가고 싶은 호텔 1위에 오르며 경제적 이윤도 이끌어냈다. 이 호텔의 이야기는 켄트와 브리타라는 스웨덴 부부가 숲속의 오래된 게스트하우스들을 고치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를 허무는 과정에서 나무와 풀, 이끼가 상할 것을 염려해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민하던 중 방 한 칸짜리 호텔을 만들기로 마음먹는다. 이들의 야심찬 계획에 베르틸 하르스트롬(Bertil Harström), 토마스 산델(Thomas Sandell) 등 전도유망한 건축가들이 합류하면서 어릴 적 꿈꿨을 법한 나무 위의 오두막집을 구현한 트리 호텔로 재탄생한다. 숲속에 불시착한 UFO, 거대한 새 둥지 등 창의적이면서 동심을 자극하는 트리 호텔 외관은 특별하다. 또 분뇨를 배출하지 않고 태우는 방식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용해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스웨덴 북부 하라즈 숲속에 자리 잡은 트리 호텔은 4–7 m 공중에 떠 있는 나무 위 숙소다. 유리로 만든 '미러 큐브 룸', 새 둥지를 닮은 '네스트 룸', 우주선 모양의 'UFO 룸' 등 외관이 이색적인 7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www.treehotel.se

© Treehotel

탄소 중립,

넷 제로 사회의 달라질 일상

글. 박상욱 JTBC 환경 기자
일러스트레이터. 이안

탄소 중립.
익숙하다면 익숙한,
낯설다면 낯선 단어다.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즉 '넷 제로'인 상태.
더 풀어보자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시작했던 것이 이젠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 법제화한 한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뿐 아니라 일본과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가 탄소 중립 법제화를 마쳤다.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에 탄소 중립 이행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 나라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향 조정했다. 영국과 독일은 1990년 대비 각각 68%, 65% 감축한다는 목표를 공표했다. EU 차원에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고, 이를 구체화한 법안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46%, 캐나다는 2005년 대비 최소 40–45% 감축 목표를 내놨다. 단순히 2050년 목표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목표로 향하는 주요 이정표를 확정한 것이다.

이미 1.09℃ 더워진 지구

이렇듯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 평균보다 1.5℃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50년에 한 번 찾아올 법한 극한 고온 현상의 빈도는 8.6배가 된다. 10년에 한 번 경험할 가뭄은 2배, 폭우는 1.5배로 늘어난다. 어떻게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묶자며 국제사회가 뜻을 모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존이 달려서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좀처럼 배출량을 줄이지 못했다. 그 결과 2011–2020년 1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1.09℃ 올랐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극한 고온은 벌써 4.8배 늘었다. 2006–2018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연간 3.7mm에 달한다. 1901–1971년 평균 속도의 3배가량이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묶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 배출량을 2030년엔 최소한 지금의 50% 수준으로, 2050년 즈음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탄소 중립

한 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로 무역을 통해서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는 나라에선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간다. 배출량 감축을 위한 R&D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배출권 구매에도 큰 비용을 지불하며, 생산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의 노력은 지구의 열기를 식히는 데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생산 단가 상승이라는 결과도 함께 불러오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기업마다 노력의 정도, 비용의 규모가 달라지면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의 차이를 부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EU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를 택했다. EU로의 수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보고, EU 내에서의 탄소 배출권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을 매기는 제도다. 당장 2023년부터 시범 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 수입자는 해당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해당 수입품의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EU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해당 기업이 생산국 내에서 별도의 탄소 비용을 냈다면 이 역시 신고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부터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만일 생산국 내에서 탄소세나 온실가스 배출권 등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 EU의 이 같은 방침에 미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

30년 전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주력 상품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우리는 30년 동안 대응을 미뤄왔을 뿐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일까.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혹은 EU보다 더 강력하게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이다.

필수가 된 에너지 전환

이는 에너지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수인 것이다. 이미 탈석탄은 세계적 트렌드가 됐다. 석탄 관련 시설엔 '좌초 자산'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수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서둘러 석탄과의 손절에 나섰다. 이 트렌드는 점차 탈화석연료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글로벌 큰손'이 투자를 멈추기 시작한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명제도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최근 10년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균등화 발전 단가(LCOE)가 급격히 낮아졌다.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과 육상 풍력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졌다. 상대적으로 신기술로 분류되는 집광형 태양광과 해상 풍력의 경우 세계 평균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평균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미 북미와 남미 전반에 걸쳐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됐다. 많은 이들이 '온실가스 남 탓'의 대상으로 꼽는 중국과 인도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다. 반면 석탄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국은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어떻게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까. 관련 산업의 발달과 확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판매량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 비용을 낮추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 1위를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어떨까. 글로벌 톱 10 중 8곳이 중국 기업이다. 자국 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공급량 세계 1-4위를 싹쓸이했다. 풍력발전의 경우 미국의 GE와 스웨덴의 베스타스(Vestas)가 압도적인 1-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에서도 최근 중국 기업들이 약진하며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일상 깊숙이 생기는 변화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쉽게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수송 부문의 변화다. '글로벌 탄소 중립 원년'으로 일컫는 2021년의 시작과 동시에 많은 자동차 제조사가 앞다퉈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탄소 배출량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 또한 EU다. 각 제조사별로 전체 판매 차량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km당 95g으로 제한한 것이다.

EU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핏 포 55'를 통해 '내연기관 퇴출'을 공식화했다. 2035년부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어떠한 형태에서도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신차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탄소 중립 공정을 통해 만든 무공해 차를 재생에너지로 충전해 이용하는 일,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다. 수송 부문의 변화는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동차 대비 이목이 덜 집중된 철도와 선박, 항공 분야 역시 연료 부문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 또한 개개인의 생활에 작지만 큰 변화를 불러온다. 바로 100% 소비자였던 개인이 프로슈머로 변모하는 것. 이미 일부 국가에선 이러한 변화가 빈번히 목격된다. 국내에서 전기차 제조사로 알려진 테슬라가 자동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인 솔라루프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파워월과 메가팩, 파워팩 등을 판매하며 하나의 '에너지 통합 솔루션' 공급에 나선 것이 대표적 예다. 테슬라의 파워월은 이미 2020년 설치 대수 10만 대를 넘어섰고 모델3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생산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에서 프로슈머로의 변화는 많은 의미가 있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전기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다. 편익을 최대로 하려면 자연스레 발전량을 늘리고 스스로 소비하는 양을 줄이는 노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끼면 돈이 된다'는 사실에 더 이상 '물 쓰듯' 전기를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레 절전뿐 아니라 '전력 효율 관리'의 마인드가 자리 잡게 된다. 단순히 전등 하나 끄고 콘센트 하나 뽑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쯤 되면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자연스레 바뀔 것이다. 개개인의 전등 끄기 노력 그 이상의, 대대적인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박상욱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주요 소식을 심층 보도하고 있다. 2021년 세계 기상의 날 기상청장 표창, 2019년 한국기후변화학회 기후변화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Living the Good Life

대지와 가까이
스콧 & 헬렌 니어링 부부의 굿 라이프

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내 나이 어느덧 예순을 넘었다. 코흘리개 철부지였던 아이들이 벌써 서른 나이를 먹었다. 두 아이를 기르면서 아내와 함께 독서의 여운을 깊이 있게 나눈 몇 안 되는 책이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Loving and Leaving the Good Life)』(1997)와 스콧 & 헬렌 니어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Living the Good Life)』(2000)이다.

이들 책은 스콧 니어링(Scott Nearing, 1883–1983)과 헬렌 니어링(Helen Niearing, 1904–1995) 부부의 삶과 생각을 오롯이 담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반전·평화주의자, 생태주의자인 남편 스콧 니어링은 1930년대 초 대학교수직에서 해고된 뒤 한때 바이올린 연주자를 꿈꿨던 부인 헬렌 니어링과 함께 뉴욕을 떠나 메인주 버몬트 숲에 들어가 50여 년을 함께 살았다. 스콧은 그곳에서 평생 집필과 자립적인 농경 생활을 이어갔다. 익숙한 20세기 문명을 뒤로하고 대지에 뿌리내리며 당당하게 새로운 생태적 삶, 조화로운 삶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부부가 일군 '조화로운 삶(good life)'은 노동 4시간, 지적 활동 4시간, 친교 활동 4시간으로 이뤄졌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시간만 노동에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와 명상, 여행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 다만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지' 식의 방종적 낭만과 게으름을 철저히 경계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먹고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이후 시간은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데 힘쓰는 것이 삶의 원칙이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인 E.F. 슈마허는 『굿 워크(Good Work)』(1979)에서 "미래에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비록 규모가 작고 스콧 니어링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며, 효과가 있을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스콧 니어링 부부의 삶을 새로운 대안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특히 내게 와닿은 이들 부부의 삶의 지혜는 이러하다. "땅과 가까이 살고, 명상을 할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다른 사람과 사귈 때는 온유하고 친절하라. 진실되게 말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라. 일 처리에 유능하되, 행동으로 옮길 때는 때를 살펴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

『조화로운 삶』에서는 이들 부부가 버몬트의 작은 시골에서 조화로운 삶을 사는 원칙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먹고사는 데 필요한 것을 적어도 절반 넘게는 자급자족한다. 스스로 땀 흘려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 양식을 장만한다.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일을 해낸다. 집짐승을 기르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스콧 & 헬렌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의 핵심은 결국 '소유는 적게, 삶은 충만하게'인 것 같다. 공동선을 강조하며,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지혜와 영성을 택한 이들 부부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밀레니엄 시대에 모두가 들떠 있던 2000년 전후 나와 아내는 니어링 부부의 삶을 동경했다. 그래서 부산 근교의 시골집을 구하러 찾아다녔지만 마음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환갑을 지나면서 늦었지만 머지않아 대도시를 벗어날 생각이다. 소담한 텃밭 정도 가꿔가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다짐하고 있다.

김해창
좋은 삶을 고민하는 '소셜 디자이너'이자 환경경제학자. 『국제신문』 환경 전문 기자였고, 현재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있다.

이제 개인 차원의 백신을 넘어 사회적 백신이 필요한 때

신의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바야흐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개인 면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바이러스 면역학 글로벌 권위자로 손꼽히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단언한다.

먼저 면역학자로서 코로나19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것이지만, 이제 코로나19는 인류에게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우울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감기나 독감처럼 그리 중하지 않은 질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백신을 통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걷히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 접종의 이득과 잠재적 위협을 저울질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고령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다는 것이죠.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젊은 사람들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제한되어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상생활 중 접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주로 발생할 것이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모든 연령대의 분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서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백신의 작동 원리가 궁금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항체와 기억 T세포라는 두 가지 면역반응이 활성화됩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재빨리 제거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델타 바이러스가 항체 반응을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T세포 반응을 회피하지는 못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증가시키면 설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항체 반응은 회피하더라도 이를 기억 T세포가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수는 있지만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 코로나19를 감기나 독감과 같은 경증 질환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에서 많은 독자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이 '면역력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고 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면역력이 불로장생의 비밀이라도 된 듯 부풀려 이야기하는 풍조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셨는데요.

제가 '면역력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면역력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장기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이나 항암치료를 받는 분, 또 드물지만 면역결핍 질환자입니다. 즉 어떤 질병이든 약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면역력의 개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는 면역력의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말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한 개인의 면역 수준을 하나의 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을 '높인다' 또는 '낮춘다'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면역은 어떤 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는 세균에 특화된 면역 시스템, 바이러스에 특화된 면역 시스템, 기생충에 특화된 면역 시스템이 각각 존재하고 작동합니다. 즉 내 몸의 면역력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높이는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실제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이 증명되어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단 1종도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몸에는 여러 장기와 시스템이 있지만 면역 시스템만큼 복잡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세포나 단백질이 워낙 다양하고, 또 그 작용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이유로 심지어는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면역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면역세포라고 하면 쉽게는 핏속에 있는 백혈구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백혈구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안에도 림프구, 단핵구, 호중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구도 한 가지가 아니라 T세포, B세포, NK세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T세포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면역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각각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분업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업을 통해 한 가지 목표를 이루려면(면역의 경우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가 목표겠지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 서로 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린 것이 바로 면역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개인 차원의 백신을 넘어 '사회적 백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것이 인상적입니다. 5년, 10년 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으며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을 더욱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책 속 '신종 바이러스와 지구온난화의 상관관계' 내용은 여러모로 꼽씹게 되는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최근 신종 바이러스가 왜 더 자주 출현하는지에 대해 바이러스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입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벌채로 삼림이 줄어들면 야생동물이 서식할 곳을 잃어 사람과의 접점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식생이 변화하고 이는 야생동물의 생태와 서식지를 변화시키는데, 이것도 야생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 모두 거시적으로 보면 인간의 과도한 탐욕이 부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하나의 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곤 한다.
예를 들어 면역력을 '높인다'
또는 '낮춘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면역은 어떤 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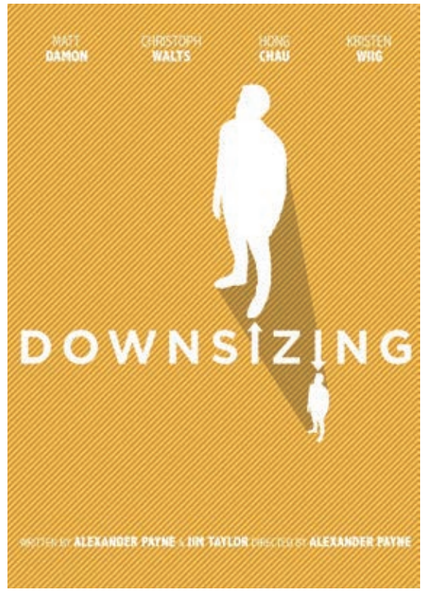
정작 줄여야 할 건 욕망이야

영화 <다운사이징>

영화 〈다운사이징〉은 인간을 12cm 남짓한 크기로 다운사이징해서 인류의 탄소발자국을 줄인다는 기발한 발상으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보드카 한 병이면 온 마을이 나눠 마실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의 크기가 작아져도 줄어들지 않는 인간의 욕망! 영화는 보드카 병을 통해 욕망의 단면을 시니컬하게 드러내 보인다.

글. 이은선 영화 칼럼니스트

© Paramount Pictures



© Paramount Pictures

공상 과학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생존 문제는 인기 소재다. 주인공은 지구를 대신할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거나 극단적인 기상 이변 상황에 맞서 고군분투한다. 〈투모로우〉(2004), 〈인터스텔라〉(2014), 〈마션〉(2015) 등의 영화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또 다른 공통점도 존재한다. 실제의 환경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데 반해 인물들의 활약은 대부분 단순한 목표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한 편의 블록버스터로 매끈하게 탄생한 수난기를 지켜본 뒤에 남는 것은 눈물겨운 인류애다.

이는 너무 장르 편향적인 데다 인간 중심적 사고 아닐까?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영화 〈다운사이징〉은 남다른 상상력으로 인류를 다른 차원으로 바라본다. 우선 블록버스터가 아닌 냉소적인 블랙코미디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지닌다. 이 영화에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맞서는 이타적이고 위대한 개인이 아니라, 아예 스스로를 변형하려는 이들이 등장한다.

행복의 조건

가까운 미래에 유기체의 무게를 2,744분의 1로 줄이고 부피를 0.0364%까지 축소할 수 있는 다운사이징이 개발된다. 노르웨이 연구진이 인류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이 기술의 인체 실험에 36명의 참가자가 나선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12cm 남짓한 크기로 줄어든 36명이 4년간 배출한 비가연성 폐기물의 양은 비닐봉지 한 개도 채 안 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기술을 상용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일까. 감독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 다운사이징을 둘러싼 인간의 다양한 반응을 살핀다. 모두가 지구를 위한 궁극의 이타주의로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영화가 그리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도 욕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은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초반, 우리는 주인공 폴(맷 데이먼)이 다운사이징 개발 뉴스에 감탄하는 장면을 본다.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치료사로 일하는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살던 작은 집에 사는 처지를 갑갑해하고, 사프라넥이라는 자신의 성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신경함에 절망한다. 영화는 10년 후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훨씬 깊숙이 들어와 있는 풍경을 비춘다. 어느덧 인간 세계에는 '레저 랜드'로 대표되는 소인국 타운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크기가 줄어든 동창 부부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폴과 아내는 다운사이징만이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입주 상담을 위해 레저 랜드로 향하는 폴과 아내가 좁은 버스 안에서 몸을 구기듯 앉아 있는 사이, 소인들을 위한 별도의 칸에는 넓은 레그룸을 보장하는 일등석이 즐비하다. 일등석의 소인은 일반석의 폴을 보며 다운사이징은 탁월한 선택이라며 부추긴다. 이때 폴의 표정은 설렘 그 자체다. 실제로 다운사이징 수술을 받고 레저 랜드에 입주하면 폴의 삶은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억 원 정도의 자산이 소인들의 세계에서는 120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 궁전이 부럽지 않은 대저택에서 누리는 호화로운 삶이 폴을 기다린다.

단지 몸의 크기를 줄일 뿐인데 평생 일하지 않아도 부자로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 '폴 사이즈 플라워 마트'에서 구입한 원래 세계의 장미꽃 한 송이가 거실 전체를 장식할 수 있는 오브제가 되는 세계다. 그러나 폴은 무력하다. 아내가 수술 직전 두려움에 포기하고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 홀로 남은 폴은 커다란 저택 대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콜센터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일하는 수고를 자처한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에 도달한다. 더 크게 많이 가지는 것만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 Paramount Pictures

© Paramount Pictures

진정 인간다운 삶

인간의 사이즈를 줄여 생산과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은 분명 획기적이다. 문제는 이 기술이 다른 방식으로 쓰인다는 데 있다. 다운사이징이 만들어낸 사회는 애초의 의도인 유토피아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 레저 타운의 견고한 벽 반대편에는 추방된 자들이 있다. 사람들은 다운사이징을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만 이용한다.

이후 폴이 노르웨이 최초의 소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점입가경이다. 남극 대륙의 메탄 누출로 인류가 멸종 위기에 다다랐다. 다운사이징은 결국 지구를 살리는 데 실패한 것이다. 최초의 소인들은 지하 세계에 건설한 '소인을 위한 노아의 방주'로 이주를 준비 중이다. 자연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이다. 폴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소수를 가두어 생존하게 하는 것은 진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일까? 그게 진정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

폴 일행이 초청의 기대만을 안고 이곳으로 향할 때 그들이 보트에 싣고 온 보드카 몇 병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다운사이징의 그늘을 목격한 이상, 우리는 이제 그것을 즐거운 축제의 오브제로 바라보기 어려워진다. 일반적인 사이즈의 앱솔루트 보드카를 마치 물탱크처럼 눕힌 다음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듯 내려 마시는 소인들의 모습을 보라. 그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만, 이건 종말 앞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다. 소인들은 땅 위에서 누리는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며 축배를 든다. 하지만 그 축하는 공허하다.

다운사이징이라는 기술을 택한 순간 인간다움은 이미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폴이 축소되는 과정을 그린 장면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다운사이징 실험체들은 마치 철저하게 분업화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출고되는 상품처럼 그려진다. 각각의 존재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개별성과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든 폴을 의료진이 작은 삽으로 떠서 옮기는 대목은 영화를 통틀어 가장 우스운 장면 중 하나다.

사람의 특성인 호모 사피엔스가 존재하지 않는 삶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영화는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이은선
영화 전문지 『스크린』과 『무비위크』, 중앙일보 『매거진M』 취재 기자를 거쳐
영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당연한 자연은 없다

물이 없어진 세상
소설『드라이』

평소 우리가 당연하고 익숙하게 누리던 자연의 혜택 하나가 물이다.

글.고호관 SF 작가

물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진다

물은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고대 문명이 대부분 큰 강 주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 봐도 물은 문명을 이루는 데 대단히 중요했다. 대도시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2,000년 전에 존재한 로마 제국은 당시 이미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수도를 만들어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를 유지했다. 로마 제국 몰락 이후에는 오히려 수도 기술이 쇠퇴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소설『드라이』는 가뭄으로 이와 같은 상수도 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야기의 배경은 미국 캘리포니아다. 이곳은 원래 건조한 지역이라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대형 산불이 종종 일어난다. 여기에 도시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드라이』와 같은 사태가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16일 미국은 자국의 최대 저수지인 콜로라도강 미드 호수의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오랜 가뭄 때문에 벌어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콜로라도강은 미국 서부의 물 공급원으로 지난 100년 동안 강수량이 20% 이상 감소했고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과거보다 심한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재해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가 먼저 피해를 보겠지만 선진국이라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 나라와 갈등을 겪거나 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 전혀 허황된 예측이 아니다.

『드라이』에서도 이런 예측의 단편을 엿볼 수 있다.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와 맞닿아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가 콜로라도강을 막아 물 공급을 막아버린다. 같은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주 사이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하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면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의 위생은 급격히 좋아졌다. 물이 오염되면 이질이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이 생기기 쉽다. 19세기 영국 런던에서는 콜레라가 여러 차례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존 스노(John Snow)라는 의사가 최초의 역학 조사를 통해 콜레라의 원인이 오염된 물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낸 사실은 유명하다. 이 소설에서도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집단으로 이질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19세기 초 상수도 오염을 막기 위한 기술이 등장했다. 처음에는 필터를 이용해 물을 걸렀고 그 뒤로 오존을 이용한 살균 방법을 개발했다. 오늘날은 염소를 이용해 소독한 수돗물을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병 걸릴 걱정 없이 수돗물을 쓸 수 있다.

물은 산업에도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업은 두말할 나위 없이 물이 중요한 산업이다. 건조한 지역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면 식량 생산이 어렵고 식량이 부족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첨단 산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는 혹독한 가뭄으로 공정에 사용할 물이 부족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 공장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방법은 인공 강우다. '구름 씨앗'이라고 하는 핵을 공기 중에 살포해 빗방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수증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얼마 안 되는 수분을 쥐어짜 자국에만 비가 내리게 한다면 이웃 나라에 가뭄이 들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다른 기술은 해수 담수화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기술이다. 민물이 부족한데 바다에 접해 있다면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어 식수나 농업용수, 산업용수로 쓸 수 있다. 해수 담수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쓰는 방법은 증발식과 역삼투압식이다.

증발식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바닷물에 열을 가해 물을 증발시킨 뒤 차가운 표면에서 식혀 다시 물로 응축시킨다. 그러면 염분이 제거된 민물을 얻을 수 있다. 바다에 표류했을 때 마실 물을 얻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다만 대량의 물을 증발시키려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석유가 풍부한 중동 국가가 아니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역삼투압식은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막을 이용한다. 이 막은 물 분자를 통과시키지만 염분은 막는다. 이 막을 가운데 두고 민물과 바닷물을 각각 넣고 바닷물에 압력을 가하면 바닷물 속의 물 분자가 막을 통해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증발식보다는 적지만 에너지 소모가 여전히 많고, 시간이 지나면 막의 성능이 떨어져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게다가 농도가 짙어진 바닷물을 배출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설『드라이』에서는 모자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해수 담수화 시설을 운영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12개의 해수 담수화 공장이 있다. 소설에서는 긴급하게 이동식 담수화 시설을 설치해 물을 제공하려 하지만 절박해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건조한 편은 아니지만 간혹 가뭄이 발생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그리고 민물을 구하기 어려운 섬 지역에서는 이미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라는 위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책을 덮고 나니 그런 사태가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수돗물은 안 나오고 마트에서도 생수를 구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물을 구할 것인가? 집 근처 중랑천에서 물을 떠와야 할까? 그 더러운 물을 내가 정화할 수 있을까?

『드라이』는 마지막에서, 물 부족 사태가 끝나고 정상으로 되돌아온 사회에서 주인공들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제는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전처럼 무심하게 바라볼 수 없어진 것이다.

고호관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과학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과학 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SF와 과학 분야 글을 쓰고 번역을 한다.『하늘은 무섭지 않아』로 제2회 한낙원과학소설상을 받았다.

지속 가능한 여행

이제 전 세계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고민 중이다.

글. 김다영

김다영
여행 교육 회사 히치하이커 대표.
전 세계를 돌며 여행 산업의 변화를 탐구하고 『여행의 미래』,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등 3권의 책을 썼다.

2020년 9월 17일 콴타스 항공은 호주를 일주하는 관광 비행 '그레이트 서던 랜드(Great Southern Land)'를 출시했다. 호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7시간가량 비행으로만 돌아보는 여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선 매출이 급감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상품이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예약 10분 만에 매진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어 전 세계의 다른 항공사들도 일제히 관광 비행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불필요한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지적이 쏟아지며 관광 비행은 뜻밖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싱가포르 항공은 관광 비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인류가 여행을 대하는 인식이 지속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호주의 대형 산불 등 기후 위기가 이제는 크고 생생한 위험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또 무한히 팽창할 것만 같았던 관광산업이 바이러스로 중단되면서 역설적으로 과잉 관광의 폐해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여행을 향한 의지는 전 세계 여행지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여행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지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소개해본다.

1

흐름을 바꾼 생태 관광

먼저 살펴볼 여행지는 생태 관광 국가다.

코스타리카는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6.5%를 보유한 열대우림 보호에 관광산업의 초점을 맞춘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다.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항공사 네이처에어(NatureAir)는 2018년 1월 운항을 종료했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탄소 중립 항공사 코스타리카 그린 항공(Costa Rica Green Airways)이 출범해 국내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생태 관광 국가는 세계 최초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환경 서약 서명을 하도록 한 태평양 서부의 팔라우다. 팔라우에는 '세계 최초' 타이틀이 하나 더 있는데, 산호와 해양 생물에 해로운 선크림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해양 보호 구역이 전체 수역의 80%에 달하는 팔라우는 경제 면에서 수상 관광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제로 웨이스트를 원칙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생태 관광의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

과잉 관광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다음 행선지는 오버 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던 여행지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전환하는 곳이다.

2021년 하와이는 '말라마(Malama, 보호)'를 관광산업의 핵심 가치로 천명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전통문화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에코투어리즘을 선보였다. 관광객이 말라마 캠페인과 연계된 호텔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면, 해당 호텔이 지정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할인이나 무료 투숙 혜택을 받게 한 것이다.

프랑스는 2021년 5월,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는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항공 운항을 제한하고 기차 여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변화는 유럽연합이 2021년을 '유럽 철도의 해'로 천명한 것과 맞닿아 있다. 유럽연합의 26개국이 힘을 합쳐 선보인 장거리 기차 여행 프로그램 '커넥팅 유럽 익스프레스'는 지난 9월 2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첫 출발해, 100여 개 정차역을 지나 10월 7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다.

3

관광자원 그 이상의 친환경 인프라

또 하나의 여행지는 친환경을 도시 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친환경 여행과 문화를 지향하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국가나 도시다. 슬로베니아는 2016년 유럽의 녹색 수도(European Green Capital)로 지정된 류블랴나를 보유한 국가다. 관광자원이 아닌 친환경 인프라가 관광의 목적으로 인정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수도인 류블랴나는 1996년부터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심에서 자동차를 통제하고 나무 2000여 그루를 심어 녹지와 공원을 조성했다. 관광객은 전기 버기카를 타고 이동하거나 차량이 없는 도심을 도보로 누비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현재 슬로베니아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숲이 많은 국가, 류블랴나를 포함해 친환경 인증 목적지를 17곳이나 보유한 청정 여행지로 발돋움했다.

지속 가능한 여행에 뒤따르는 제약과 불편함이 부담스럽다면 빈티지 패션 쇼핑과 저탄소 호텔 숙박이 가능한 도시에서 트렌디한 친환경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다. 세이브 온 에너지가 선정한 '의류 재활용이 가장 활발한 유럽 국가' 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는 오래된 패션 아이템을 개성 넘치게 리폼해서 판매하는 빈티지 숍이 많기로 유명하다. 또 유럽 최초의 지속 가능한 호텔로 불리는 더블린의 아이바 가든 호텔(Iveagh Garden Hotel)은 건물 지하에 흐르는 강에서 모든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 전역에서 다채로운 자연 체험을 제공하는 유기농 농장과 에코 로지, 리조트는 지속 가능한 여행이 꼭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의 관광산업은 지속 가능한 여행이라는 큰 물줄기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이제 우리 여행자들도 내가 선택한 항공사와 숙박 시설이 탄소 배출에 신경 쓰는지, 나의 소비가 탄소발자국을 좀 더 적게 남기는 지역 기반의 소비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세계 각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여행자에게도 일정한 책임감과 준비가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 팬데믹 이후 새롭게 꾸리는 여행 가방에는 현지에서 사용할 텀블러와 에코백 정도는 잊지 않고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식물을 닮은 삶

식물을 기른다는 것은 곧 식물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들을 만났다.

나는 생태조경가입니다

생태조경가 김봉찬의 정원에는 농약과 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의 정원에서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뽑히지 않고, 추수철에 들녘에 모아둔 볏단처럼 생긴 풀포기에도 제자리가 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히는 그의 정원인 제주도 베케에서 30년 전부터 획일화된 한국 조경에 꽃이 필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묵묵히 정원을 가꾸어온 그에게 자연주의, 생태주의 정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사진. 한기재

선생님의 페이스북은 한국 조경에 대해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기교 부린 지형, 구체적 맥락이 없는 담장이나 수벽, 좁고 작의적인 동선, 조악한 실개천… 아파트 단지 등 도심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인공 정원의 모습이죠.

정원은 지구의 일부이자 땅의 일부입니다. 전체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로 보여야 하죠. 그런데 유독 아파트 정원이나 건물 정원은 도드라져 아파트 따로, 정원 따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처럼 보일까요?

눈이 내리면 됩니다. 놀라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얗게 눈이 쌓이면 모나고 튀어나온 것들이 평평해집니다. 눈 오는 날이면 공사장 풍경도 눈에 거슬리지 않죠. 이 말인즉슨 공사장이 눈에 거슬려 보였다면 그것은 주변 땅과 이질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난 정처럼 보였던 공사장에 눈이 쌓이면 튀어나온 부분을 메워주듯 말이죠.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을 하나로 보이게 하는 공간 디자인의 개념으로 접근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원 형태를 고민해야 합니다.

공간에 눈이 내리게 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눈이 내리는 것은 공간에 하얀 점을 찍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부드러운 하얀 점이 계속 내리면 점이 곧 면으로 바뀝니다. 그럼 일 년 내내 눈이 오게 하려면? 나무를 심어서 섬세한 풍경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벚꽃나무를 심으면 벚꽃잎이 휘날리고, 은행나무를 심으면 바닥에 깔린 잎사귀가 휘날리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무를 엄격하게 골라야 합니다.

생태조경가로서 한국식 정원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술가 최정화 선생과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식 정원이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치밀하게 엉성하게'가 아닐까 하시더군요. 일본의 정원을 보면 치밀하게 짜여 있어 보기는 좋은데 사람이 들어갈 틈이 좁습니다. 빡빡하죠. 한국식 정원은 달항아리처럼 완벽한 구 형태를 띠지 않기에 묵직한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쪽이지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산책을 다니면서 치밀하지만 엉성한 정원을 찾아다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정원을 찾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과 같습니다.

사진. 김진솔

나는 식물학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전시 〈상상의 정원〉은 정원을 매개로 덕수궁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오늘날 정원의 가치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 전시에 참여한 식물학자이자 식물세밀화가인 신혜우는 서양의 여러 외래 식물이 국내로 반입되던 근대기 대한제국 황실 전속 식물학자를 상상하며 봄부터 덕수궁 내 식물을 채집, 조사하고 여기에 담긴 이야기를 표본과 세밀화, 글 등으로 풀어냈다.

우리나라의 식물학이 자주적으로 시작됐다면 어땠을지를 상상하며 전시를 풀어나간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물학은 1930–1940년대 일본 식물학자의 기록으로 시작됐습니다. 만약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면 자주적으로 식물을 연구하는 황실 전속 식물학자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가상의 식물학자가 어떻게 식물을 연구했고, 그의 방은 어떻게 생겼을지 헤아려보면서 전시관을 꾸몄고, 고종 황제가 1910년까지 영국 메이플사 가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 1920년대에 만든 영국 가구를 공수해 식물학자의 방을 재현했습니다.

봄부터 덕수궁에서 식물 조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4월부터 덕수궁에서 식물 조사를 시작해 160여 종의 식물을 살펴봤어요.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식물의 종류가 더 늘겠지만 아마 200종을 넘지는 않을 듯 해요.

조사하면서 눈길을 끈 식물이 있었나요?

전시장 중앙에 있는 식물 표본인 망초를 눈여겨봤어요. 망초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식물인데 개항과 동시에 국내에 유입됐죠. 경술국치(1910)를 전후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우리 민족은 '대한제국이 망한 후 이상한 풀이 나라에 퍼졌다'며 이를 '망초'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도 여전히 덕수궁을 지키고 있다니 놀랍네요.

망초는 봄에는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다가 여름을 지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2m 넘게 자랄 수 있습니다. 4월에 망초를 발견하고, 전시가 열린 9월까지 얼마나 성장하는지 꾸준히 지켜봤죠. 그리고 전시 개막 일주일 전에 껑충 자란 망초 가운데 내 키와 똑같은 망초를 표본으로 골랐는데, 한 식물이 성인 여성의 키만큼 자라날 동안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식물세밀화 가운데 우산이끼도 눈길을 끄네요.

망초 같은 잡초와 이끼는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형태로 가장 오래 존속한 식물입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이 우리 민족과 닮았다고 느꼈어요.. 이렇듯 식물을 관찰하다 보면 닮은 구석이 느껴지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세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려는 의도보다는 무심코 밟을 뻔했던 발아래 식물을 오래 관찰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전시에 온 관람객들도 세밀화를 통해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합니다.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생활

과학자들이 말하길 개인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이며,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제로 웨이스트다.
말 그대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생활 방식인데, 여기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글. 신지혜 / 일러스트레이터. 이안

가정에서

1 플라스틱 사용 지양하기

비닐 팩과 비닐 랩은 다회 용기와 다회용 랩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세제와 생활용품 또한 고체용품으로 바꾸거나 생략할 수 있다. 플라스틱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바꾸고 청소 포와 물티슈 역시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는 면이나 소창 행주를 사용하면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2 분리배출 철저하게 하기

반드시 라벨을 제거하고 세척 후에 배출하는 것이 필수다. 재활용 방법이 애매한 것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하고 처리한다('내 손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추천한다). 또 주민센터에서 우유 팩은 두루마리 휴지로, 폐건전지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곳도 있으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온라인 쇼핑 줄이기

편리한 온라인 쇼핑 시스템은 포장재, 완충재, 보냉재 등 수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대부분 500년 이상 썩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다. 온라인 쇼핑을 끊는 것이 쉽지 않다면 온라인 쇼핑하는 날을 정해 계획적인 장보기를 추천한다. 환경에 덜 해롭고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4 포장·배달 음식 지양하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쓰레기 중 하나가 일회용 음식 포장재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밥을 해 먹는 것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배달 대신 용기를 들고 가 포장해 오거나 필요 없는 반찬이나 소스, 일회용 수저만큼은 거절하는 것도 좋다.

5 채식 식단 늘리기

놀랍게도 개인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채식이다. 하지만 개인마다 식습관과 건강 문제, 선호도가 있기에 모두에게 채식을 강권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필요 이상의 동물성 식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직장에서

1 **텀블러 소지하기**

출근 후와 점심시간, 하루 두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1인당 500잔 이상의 일회용 잔을 배출한다. 이 문제는 텀블러를 휴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텀블러의 또 다른 장점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오래도록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2 **손수건 휴대하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손을 더욱 자주 씻다 보니 일회용 핸드 타월 사용도 급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손수건을 챙겨보면 어떨까?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작게나마 숲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으며, 휴지나 냅킨을 생산하고 표백하기 위해 쓰는 화학제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3 **종이 사용 줄이고 재생 토너 사용하기**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모품 중 하나인 종이. 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양면 인쇄를 하거나 이면지를 활용하고, 파쇄지를 모아뒀다가 택배 충전재로 사용한다. 프린트 토너 역시 토너 파우더나 잉크를 채워 재판매하는 재생 토너를 사용하면 환경 폐기물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4 **대기 전력 소모 줄이기**

전기 제품을 구매할 때 미리 대기 전력을 잡아먹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안 쓰는 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거나 절전 콘센트를 사용해 대기 전력 소모를 줄인다. (전원 버튼의 둥근 원 안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대기 전력이 소모되지 않는 제품이며, 원 밖으로 선이 나와 있으면 대기 전력이 소모되는 제품이다.)

5 **출퇴근 시 승용차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한 사람이 승용차로 이동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버스로 이동할 때에 비해 무려 8배가량 높다고 한다. 출근길이 가깝다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업 시설에서

1 **“안 주셔도 돼요!”라고 거절하기**

환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거절하는 용기다.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 카페에서 쓰지 않는 플라스틱 빨대와 물티슈, 냅킨을 거절하는 것, 식당에서는 먹지 않는 음식은 애초에 받지 않는 것. 필요한 것 이외의 것은 과감하게 거절해보자!

2 **남은 음식 포장해 오기**

주문한 음식은 깨끗하게 덜어 먹고, 남으면 포장해 온다. 외식할 때 미리 다회 용기를 챙겨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 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비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

3 **B급 제품, 벌크 제품 구입하기**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포장 과정에서 흠이 생겨 정상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한다. 또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용량 제품을 구입해 포장재 소비를 줄인다.

4 **소비로 응원하기**

지속 가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조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들이 성장해야 시장 전체의 흐름이 친환경적으로 변화한다.

5 **기업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반대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지난 한 해만 돌아봐도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음각을 새겨 넣고, 테트라 팩에 부착된 빨대를 제거했으며, 정수기 필터 회수 시스템을 도입했다.

환경친화적인 삶,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것이다. 지구에 무해하다는 안도감, 무엇보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즐거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는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환경 문제는 분명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변화를 꾀해보자.

신지혜
‘도시생활자를 위한 에코-프렌들리 일상 제안’을 부제로 단 책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를 집필했다. 요가를 수련하고 나누는 일과 더불어 친환경 라이프를 제안하는 웰니스 커뮤니티 ‘나투라 프로젝트’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아주가
그리는 친환경

기업의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로 떠올랐다. 실적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기업 환경은 주주의 이익,
직원 복지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까지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고,
소비자는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
아주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본다.

아주산업, 착한 콘크리트의 미래

콘크리트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우리가 걷고 뛰고 일하며 생활하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에서 꼭 필요한 건축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콘크리트의 핵심 재료인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주산업은 매년 1억 루베 이상 사용하는 콘크리트 산업의 막중한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을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또 각종 산업 부산물의 자원 재활용을 위해 타 산업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탄소 콘크리트 인증

아주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총 4개의 레미콘 규격(25-24-150, 25-27-150, 25-30-150, 25-35-150)에 대해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레미콘 규격은 모래와 자갈 등 골재 크기(mm)-압축 강도(mpa, 메가파스칼)-물에 섞였을 때 퍼지는 정도를 뜻하는 슬럼프값(mm) 순으로 표시한다.

아주산업이 인증받은 저탄소 제품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로 1단계 탄소발자국과 환경성적표지, 2단계 저탄소 제품 인증으로 나뉜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동종 제품의 평균 이하(탄소발자국 기준)로 탄소를 뿜어내거나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3%(탄소 감축률 기준) 감축한 제품이 받을 수 있다. 즉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아주산업은 이번 2단계 인증에 앞서 2020년 레미콘 제품 4개 규격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를 획득, 환경 신뢰성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공기 정화 콘크리트

아주산업 아주기술연구소는 고기술, 고품질의 미래 생활 공간을 창출하고자 2004년 12월 설립했다. 석·박사급 전문 연구원들이 다양한 콘크리트 관련 제품의 성능 개선과 신제품 연구개발 업무를 하며 매년 국내외에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등록하는 등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다. 아주산업이 선보이는 친환경 콘크리트도 아주기술연구소의 전문성이 낳은 성과다.

아주산업은 이미 2009년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콘크리트를 개발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의 인정과 함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공기 정화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활성탄과 이산화티탄 같은 타 기술을 융합해 미세먼지(nox)와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기화합물을 흡착하고 분해하는 인간 친화적인 콘크리트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공기 정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회색빛의 건물 외관 대신 계절별, 일별 온도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컬러 콘크리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식생 가능 콘크리트', 누수나 결로 등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막는 '방곰팡이 콘크리트' 등 녹색 성장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 콘크리트 개발을 완료하고 분야별 상용화 단계에 있다.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제로 프로젝트

호텔업계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아주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이하 '라이즈 호텔')이 친환경 캠페인 '제로 프로젝트(Zero Project)'를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분적으로 도입하던 친환경 활동을 호텔 운영 전반에 걸쳐 확장 적용하는 것으로 투숙객과 방문객, 호텔 직원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라이즈 호텔은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매일 사용되고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자원을 '제로'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텔은 일회용 어메니티 사용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회용 어메니티의 경우 친환경 소재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가장 많은 객실 수를 차지하는 크리에이터 룸과 에디터 룸의 어메니티는 친환경 소재 위생 어메니티로 교체했다. 여기에 객실마다 비치했던 플라스틱 소재 펜을 어머니 한글 학교 '일성여중'에 모두 기부한 후 생분해 소재의 친환경 펜으로 채워 넣었다. 유광 코팅 종이로 제작한 호텔 안내 책자 등은 TV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체했다.

이 외에도 호텔 내 차르 레스토랑과 루프톱 바 사이드 노트 클럽 등에서는 종이 냅킨 대신 리넨 냅킨을 우선 제공하고 종이 컵받침(코스터) 대신 코르크 컵받침을 사용한다.

제이선 임 라이즈 호텔 총지배인은 "호텔이라는 서비스업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을 전부 없애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낭비되는 자원이 없도록 프로젝트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주오토리움, 볼보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

볼보는 최근 2030년까지 모든 생산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가장 선도적으로 친환경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아주오토리움이 볼보와 함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일산·목동·안양 전시장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사용하는 차량 관련 인쇄물을 모두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체한 것. 이는 2040년까지 기후 중립화를 달성한다는 글로벌 차원의 기후 대책 계획을 지지하는 볼보의 전략에 발맞추는 아주오토리움의 대응이다. 아주오토리움은 볼보와 함께하는 이번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위해 영업 현장의 모든 매니저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태블릿 PC를 지급하고, 전시장 내 제품 브로슈어와 액세서리 리플릿, 차량 제원표 등 기존 인쇄물을 대체해 활용하도록 했다.

환경보호 프로젝트로 시작된 변화지만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아주오토리움 전시장을 찾는 고객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시장 사정상 모든 차량을 구비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제원의 차량과 모든 색상의 차량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태블릿 PC는 종이 인쇄물의 단순한 차량 소개와는 달리 차량을 이해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된다 .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아주오토리움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볼보의 기후 중립 액션 플랜에 적극 호응하며 차량 소개에서부터 시승 서약서, 차량 계약서 등의 문서도 모두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에 앞서 아주오토리움은 지난해부터 전시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행동에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습니다"라며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는 면에서 아주와 볼보는 하나 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아주오토리움은 전시장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디저트를 제공할 때 플라스틱이나 비닐 제품 대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종이컵이나 유리 용기를 사용한다. 또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류 봉투, 쇼핑백도 모두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로 제작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는 아주오토리움은 UN의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창립 멤버인 볼보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대해 선제적 노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친 심신을 북돋는 아주인 활력 UP 프로젝트

"구성원의 행복이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최고경영자의 철학인 '행복의 선순환 구조'는 아주가 일궈가는 행복한 일터의 굳건한 기둥이다.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하면 우리 사회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아주는 오늘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 팬데믹 등으로 아주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이 우려되는 요즘, 이 문제를 극복하고 기운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주가 발 벗고 나섰다.

"—— " 김지용 아주큐엠에스 인프라서비스팀 책임

텃밭이 생겨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원래 한 고랑을 배당받았는데
어머니가 한 고랑 더 받자고 하셔서
지금은 두 고랑에 고추며 가지, 오이 등을 심어
기르는 중입니다. 텃밭 활동 이후
어머니와 더 자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 " 임경례(김지용의 어머님)

세상에!
회사에서 이런 걸 주는 곳이
또 어디 있대요!
회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추 걷고 나면 가을에
열무랑 배추, 총각무를 심어서 맛있게
김장해 먹으려고요.

코로나 블루를 다독이는 초록빛 위안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데 이어,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좌절과 절망을 동반하는 '코로나 블랙' 현상까지 나타나는 중이다. 특히 일상생활은 물론 회사에서도 경영 환경, 근무 형태 등의 변화로 대화가 줄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우울감은 물론 소속감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많은 기업이 속속 직원들의 심신 건강을 챙기는 마음 방역에 나서고 있다. 아주 역시 개인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주 구성원 케어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 사례가 활력 증진을 위한 텃밭 활동 '아주 농부'다.

올해 4월 사전 신청을 받아 5월에 본격 활동을 시작한 텃밭 활동 '아주 농부'는 여름 수확을 마치고 가을을 맞는 중이다. "텃밭 활동은 우울감이 감소되었거나 만성 질환자, 특히 암 환자의 경우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했다는 등 다양한 효과가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 아주 농부 프로그램도 실외 활동이 중심이 되는 '팀 가드닝'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텃밭을 가꾸는 '팀 빌딩'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활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팀 내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 성취의 기쁨으로 연결하는, 그야말로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팀 빌딩 활동이 바로 '아주 농부'인 셈. 그래서 할당받은 텃밭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는 구성원 스스로 정해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계산 자락에 마련한 총 18구좌(1구좌당 13m²규모)의 텃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51명. 이 중에는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구좌도 있는데,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내왔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최초 취지인 팀 빌딩과는 다르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또한 구성원들의 심신 안정과 활력 증진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가족도 참여 가능하도록 배려함으로써 텃밭 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 아주 농부들이 텃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고추, 감자, 가지, 피망 등 기본 채소 외에도 여름 제철 과일인 애플 수박, 방울토마토 등 다양하다. 각자의 희망에 따라 심은 작물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고 결실을 맺어 7–8월 사이 첫 수확을 마쳤다. 첫 수확을 마친 구성원들은 9월부터는 감자, 고구마 등 가을 작물을 선정해 심으며 다시 텃밭 활동을 시작했다.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구성원들과 유대감을 늘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텃밭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공동의 목표

작물 선정
- 팀 자율 작물 선정
- 텃밭, 팻말, 기본 모종 회사 지원 (모종삽 등 소 농기구 개별 지참)

공통의 관심사

작물 재배/가꿈
- 구성원 자율 참여
- 가족 동반 방문 가능
- 단, 1회 방문 시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성취의 기쁨

작물 수확
- 팀 또는 본부 단위 참가자 나눔

현장에 보내는 시원한 응원, 따뜻한 진심

올해 여름은 연일 35℃를 웃돌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그늘 한 점 없는 현장에서는 그 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에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이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건자재 사업소에 커피 차를 발송,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전달하며 현장 구성원 응원에 나섰다. 건자재 사업소는 대부분 위치 특성상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려면 20-30분은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번 커피 차 운영은 요즘 같은 폭염에 단비 같은, 의미 있는 선물이 아닐 수 없다.

7월 16일 파주사업소를 시작으로 비봉, 수원, 아산, 평택, 병점, 광명, 광주, 상암, 인천까지 총 10개 사업소에 커피 차가 방문했다. 현장에서 바로 제조한 10종의 음료와 간식 세트 총 1,500여 개를 건자재 현장 구성원을 비롯, 협력 업체 직원과 레미콘 기사에게도 함께 전달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아주의 응원이 담긴 시원한 에너지 선물을 받은 현장의 모든 이들은 반갑고 고맙다며 소감을 전했다. "현장에서 힘든 점은 딱 하나, 날이 덥다는 거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음료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를 겁니다. 매일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광명사업소 이봉식 레미콘 기사는 타 레미콘 회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커피 차 응원에 깊은 고마움을 표시했다.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현장 곳곳에 응원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커피 차 응원을 기획했다. "최근 '팬덤 컬처'의 하나로 커피 차 응원이 유행하는데, 이런 이벤트는 비단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 힘을 주는 긍정적인 문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커피 차 역시 폭염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아주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직원, 레미콘 기사님께도 아주가 감사해하고 있다는 말씀과 힘내시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의외로 높은 만족도에 아주는 혹한기 겨울 시즌에 한 번 더 커피 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마음과의 대화

아주는 2018년부터 프리미엄 기업 문화 정규 과정으로 AFC(AJU Fundamental Course)를 운영해왔다. AFC는 아주가 추구하는 기업 문화, 경영 철학의 전 사원 공감 및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위한 '혁신/변화 관리' 과정으로, 철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과 삶의 의미를 돌아봄으로써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혁신을 향한 동기 부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오프라인 집합 과정으로 운영하던 AFC는 마인드 셋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이 주 콘텐츠였다. 전문 인스트럭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명상 수업은 올바른 호흡과 자세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나의 몸과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보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시간으로, 참여 구성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AFC는 기존의 2박 3일 집합 과정 대신 온라인 비대면 과정으로 단축 운영 중이다. 온라인 과정으로 임시 전환되면서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으나 명상 콘텐츠는 그대로 운영한다. 오히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구성원들의 마음 챙김'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며, 현재는 아주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이 마음 챙김 명상을 사내 프로그램에 도입해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AFC 과정 내 명상 프로그램은 국내 첫 '마음 챙김 명상' 앱을 선보인 스타트업 '마보'의 유정은 대표가 진행한다. 유정은 대표는 구글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SIY(Search Inside Yourself)' 방법론을 적용, 회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목해 매일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고 실습한다. 또 아주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온라인 명상 앱 '마보' 1년 이용권을 증정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news

“행복한 아주를 우리 같이 만들어갑시다”

아주

아주 창립 61주년을 맞이해 문규영 최고경영자가 아주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문규영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려면 구성원 간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행복한 아주를 우리 같이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아주는 나에게 ‘가족’입니다

삶 속에서 철학과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인 아주는 아주 가까운 가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아주와, 또 우리의 구성원들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주와 아주의 동료들이 많은 시간과 추억을 공유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1960년 9월 1일,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사업보국’이라는 씨앗이 ‘개척자 정신’을 바탕으로 뿌려졌고, 함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아주’라는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아주의 생일을 맞아 아주 가족 모두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 60여 년의 시간 동안 아주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아주에게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가족에 비추어 생각하면 ‘가장(家長)’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저는 아주 가족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지해줄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이고자 합니다. 가족은 기쁨을 함께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에 더욱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족의 위로와 응원이야말로 아픔을 치유하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하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유례없는 상황에서 구성원 간의 위로와 응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아주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어준다면 이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시기를 극복한 후에는 아주 단단하게 성장한 ‘행복한 아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주의 버팀목이 되어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함께 응원합니다.

아주가 61주년 창립기념일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게 노력해온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아주 가족들이 서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나눌 때 기쁨은 배가되고 어려움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아주를 우리 같이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문규영 최고경영자

아주산업 인천사업소 온라인 간담회

아주산업

비대면이지만 실시간으로 아이 콘택트를 하며 생동감 있게 진행한 아주 구성원들과 최고경영자의 온라인 간담회가 지난 6월 23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의 주인공은 아주산업 인천사업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사업소는 지난해 7월 인천·경인 지역 건자재 시장에서 권역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한 이후 줄곧 지켜오고 있다. 문규영 회장은 “힘든 순간에도 아주를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천사업소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 난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간을 떨쳐내고 새로운 성공을 맛보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 또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일터에서 늘 ANT 경영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협업하고 같이 노력할 때 더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고 힘내주길 바랍니다.”

이에 화답하듯 인천사업소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혁신과 성장 스토리를 공개했다. 영업팀 신일철 매니저를 시작으로 혼화제팀 전인기 매니저, 협력 업체에서 지난 4월 아주산업으로 이직한 지원팀 임근혁 매니저, 마지막으로 16년 장기근속에 빛나는 고객만족팀 손대국 매니저는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끌어냈는지 그 해법을 공유했다. 이어서 간담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문규영 최고경영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한 걸음 더 깊은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솔한 질의응답이 오갔는데, 그중 스물세 살에 입사해 서른 살이 된 지원팀 최희정 매니저의 질문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문규영 회장은 “인생에서도 황금기에 속하는 나이”라면서 “이때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지식과 지혜를 얻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따뜻하게 조언했다.

문규영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행복을 향해 가는 한 가족”이라면서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해갈 인천사업소를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온라인 간담회를 마쳤다.

아주세미나,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전망하다

아주

2021년 3분기 ‘아주세미나’가 지난 7월 9일 오전 9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IGM세계경영연구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진단 및 전망’을 주제로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 김광석 실장이 강의를 맡았다. 200여 명의 아주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한 가운데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어 현재 가장 큰 경제 위기로 대두된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하반기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것으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김광석 실장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3.3% 경제성장률을 보인 세계경제가 2021년 하반기에는 6%에 이를 것이라고 IMF가 발표했는데, 한국 경제도 2020년 -1%라는 충격을 딛고 2021년에는 약 3.5%로 반등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며 그만큼 다양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광석 실장은 총 9개 이슈로 팬데믹이 가져온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진단했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투자해야만 생존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있고, 백신 보급 이후 또 어떤 변화가 오며, 세계경제와 금융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읽어내고, 변화에 걸맞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역시 현재 처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부상하는 산업을 포착하고 그 산업 영역에 진출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바랍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 다양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아주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변화라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러니 변화를 좇으라”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과 함께 김광석 실장은 강의를 마쳤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아주 구성원들과 경제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사업소, 파주 파평초등학교에 스쿨버스 기증

아주산업

지난 6월 21일 아주산업 파주사업소의 스쿨버스 기증식이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사업 초기부터 묵묵히 ESG 경영을 실천해온 파주사업소는 사업소 소재 지역 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 청소, 덤프트럭 운행로 통제소 관리직 고용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스쿨버스를 기증받은 파평초등학교는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오가는 주요 길목인 파평산로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구간이 인도가 없는 지방도로라 평소 마을 주민뿐 아니라 학생들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파주사업소는 그동안 지역 주민을 교통통제원으로 채용, 지역 일자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다 최근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지역민들의 의견에 공감, 스쿨버스 기증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 마침 10년 전 파평초등학교 총동문회가 기증한 스쿨버스가 10년 운행 제한이라는 규정에 따라 올해 운행을 마쳐야 하는 상황으로, 새 스쿨버스가 꼭 필요한 시점이어서 파주사업소의 스쿨버스 기증은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기증식에 참석한 파평초등학교 총동문회 대표이자 지역발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근배 회장은 "10년 전 스쿨버스 한 대로 인해 학생이 늘어나고 지역 생태계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아주산업의 스쿨버스 기증은 비단 스쿨버스 한 대 기부라는 의미를 넘어 다시 한번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주산업도 더욱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파주사업소가 파주 지역 최초의 혁신 학교로 지정, 더 많은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파평초등학교에 기증한 스쿨버스는 두포리, 마산리 인근에 거주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집을 돌며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한편, 원거리 자연 생태와 야외 수업 프로그램에도 적극 활용해 아이들의 성장은 물론 학교 발전에도 든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경영자와 아주IB투자 온라인 간담회

아주IB투자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 16일, 아주IB투자와 최고경영자가 온라인으로 만났다. 아주IB투자는 국내 최초 벤처 캐피털로 업계 톱 티어(top tier)에 어울리는 최고 성과를 기록 중이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아주IB투자의 대표 주자들은 아주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부터 목표까지 아주와 함께하는 지금,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날 간담회는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주IB투자의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 분야인 솔라스타벤처스 실리콘밸리지점과 액셀러레이터 사업단의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솔라스타벤처스 실리콘밸리지점의 칼 초이(Carl Choi) 투자팀장은 무려 16시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적으로 확고한 투자 철학을 갖고 4년 내에 솔라스타벤처스를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탄탄한 벤처 캐피털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침없는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각 부서가 현재 어떤 자세와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아주IB투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발표 중간중간 구성원들이 문규영 회장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의하면서 대면보다 더 자연스러운 비대면 만남의 또 다른 묘미를 느끼며 온라인 소통의 즐거움이 배가됐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의 마지막 질문은 김선욱 투자이사가 맡았다. '지속 성장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을 묻는 그의 질문에 문규영 회장은 협업과 겸손을 강조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꾸준히 하면 되고, 이 외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함께 꿈꾸기 위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간다면 얼마든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된 '꿈 찾기', 아이들의 꿈은 계속된다

아주복지재단

아주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회 공헌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꿈 찾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을 본격 재가동했다. '찾아가는 꿈 찾기'는 2017년 아주좋은꿈터 개관 이후 '꿈 찾기 프로그램'으로 출발, 동대문구 지역 내 저소득 계층 아동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2020년부터는 '찾아가는 꿈 찾기'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 유관 기관 및 대상자를 선정해 더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바른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한 '찾아가는 꿈 찾기' 사업은 올해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을 두루 활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진로 방향 제시', '진로 기반 다지기', '온라인 진로 체험 활동', '미래 직업 탐색(온라인 박람회)' 등 네 가지 핵심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진로 탐색 검사'와 '핵심 역량 검사'를 추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8월부터 진행한 '온라인 진로 체험 활동'에서는 약 50개 직업군과 20개 학과의 직장인, 대학생과 온라인 만남을 통해 멘토링을 실시하고. 11월 중 진행 예정인 '미래 직업 탐색 활동'에서는 명사 특강을 통해 직업의 세계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며 창직(創職) 활동(기존에는 없는 직업이나 직종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기존 직업을 재설계하는 창업 활동)도 병행, 미래 직업에 대한 탐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년 '찾아가는 꿈 찾기' 참여자는 초등학교 5-6학년 35명과 중학교 1-3학년 50명으로 총 85명. 아주복지재단이 직접 심사해 선정한 서울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 10곳도 힘을 모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주복지재단은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가위, '명절 선물 안 받기' 실천

아주

아주는 올 추석에도 '명절 선물 안 받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윤리 경영을 실천했다. '명절 선물 안 받기' 캠페인은 협력 업체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 가운데 여러 사정으로 반송하지 못한 물품을 사내 경매에 부쳐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아주복지재단에 기부, 사회공원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주 전 계열사는 2004년 윤리 경영을 선포하고, 그해 추석부터 '명절 선물 안 받기'를 시행하고 있다. 선물 자진 반송, 경매 진행 등 윤리 규범의 자율적 전개로 전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협력 체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주 온라인 퀴즈쇼 '건며들다'

아주산업

지난 9월 8일 아주산업 건자재사업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소통 부재의 벽을 허물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아주 온라인 퀴즈쇼'는 경영진이 문제 출제 영상을 사전 녹화하고, 당일 매니저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며 정답을 맞히는 형식으로, 건자재 전 부문·본부 임원과 각 본부·사업소 2030세대 매니저들이 함께했다. 이번 퀴즈쇼의 부제는 '건며들다'. 소통을 통해 '건자재 임원에게 스며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취지에 걸맞게 이날 출제 문제로는 아주산업 내 제안 시스템이 무엇인지, 아주산업이 글로벌 경영을 선포한 이후 해외 진출 국가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등 회사의 이모저모부터 뉴노멀, ESG, 386세대, 알파세대 등 최근 이슈 및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퀴즈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다. 퀴즈쇼의 첫 번째 우승은 막판 동점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광명사업소 이승렬 매니저가 차지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정말 기쁘고, 경영진이 출제한 퀴즈를 통해 경영진의 생각을 조금은 이해할 있는 시간이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아주산업 경영혁신팀은 많은 구성원들이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PECIAL GIFT

『아주 좋은 날』 2021년 가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상상으로 만나는 FACES COLORING BOOK』
숨 가쁜 일상에서 빠져나와 숨 고르기 모드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컬러링
북이다. 환상적인 분위기의 일러스트가 현실 공간의
나를 상상 속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옮겨놓는다.

『세상을 바꾼 식물 이야기 100』
인기 TV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 전문가인 저자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실생활에서 익숙한 100가지
식물에 얽힌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세계사와
함께 소개한다.

1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독서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롭고 상상이 넘치는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끌곤 합니다. 다채로운 이미지로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컬러링 북, 세계사와 얽힌 흥미진진한 식물 이야기와 환경과
팬데믹에 관한 애플트리태일즈의 도서를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선물로 드립니다.

『바다를 꿈꾸는 기형 물고기 프린세스』
"나풀나풀 아름다운 꼬리와 오돌토돌 점박이가
기형 물고기였다고?" 이 책은 기형 물고기
프린세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지구
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기형 물고기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는 '환경 동화'다.

『손을 왜 씻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습관'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어린이들에게 바이러스가
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주인공 민종의
이야기로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3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한잔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2

오늘과 다른 내일,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즐거운 노래를
듣거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생기가 돌죠.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reader's story

호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차고 다양한 이야기로
생각의 크기, 삶을 바라보는 혜안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날』이 곁에 있어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봄호에서는 박용택 야구 해설위원 인터뷰를
통해 매 순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마음보다는 그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이자 최선인 삶의
루틴임을 잘 알게 됐습니다. '총량의 법칙'이라는 불변의
자연 진리처럼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중에 얼마나
좋아지려고 이럴까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춘임 님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남극 장보고
기지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채소를 기르는 등 자급자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봄호에서 접한 '<마션>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칼럼이 오버랩되더군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인류를 꼼짝 못 하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인간의 한계에 대해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지만,
또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끈질긴 도전 정신이 이루어갈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침체된 이 시기에 모두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환 님

아주

57
9 772508 522001
ISSN 2508-5220